

“하반신 발포 명령, 사단 상황실서 지시”

5·18때 31사단 1대대장 정운소령이 전하는 당시 상황

뒤늦게 정운 사단장이 “발포 말라” 명령 ‘북한군 소행’ 말도 안되고 불순분자 없어 무기달라는 중·고생들 다독여 돌려보내

5·18 당시 계엄군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31사단 한 지휘관을 통해 확인됐다.

1980년 5월 광주31사단(향토사단) 1대 대장으로 근무한 정운(66·당시 소령) 씨는 “5·18 당시 총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반신에 발포하라는 발포명령이 있었다”고 11일 증언했다.

그는 이날 광주일보와 만나 “1대대장이었던 (나는) 무전을 통해 31사단 상황실로부터 발포 명을 지시받았으며, 이날 뒤늦게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정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21일 정운 사단장을 지휘계통에서 배제한 사실(광주지

발간 ‘5·18민중항쟁사’)을 감안하면, 발포 명령은 그 이전인 20일경으로 추정된다. ‘5·18민중항쟁사’ 기록에 따르면 공수부대의 도청 앞 집단발포 시점은 21일 오후 1시였다.

그는 “당시 사단 사령부에는 운전적 진압을 주장하는 정운 사단장과 강경진압을 주장하는 진압군 간의 격론이 있었는데, 지휘권을 가진 정 사단장의 발언권이 약했다”면서 “당시 강경파(진압군)가 발포명령을 내리고 정 사단장이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발포하느냐는 격론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당시 진압군 관계자들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군 자위권 발동’, ‘시민들의 선



1980년 5월 31사단 1대대장으로 근무한 정운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 공격에 대한 우발적 대응’이라는 진술 등으로 일관, 발포명령자의 실체는 물론 발포명령의 존재도 부인했었다.

정씨는 또 당시 광주·전남에는 북한군으로 불만한 폭도나 세력이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보수언론과 인터넷 포털 등 일각에서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광주에서 복무한 군 지휘관으로서 접한 시위대는 모두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5·18 당시 광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300여명이 시내버스 5대에 나눠타고 부대로 몰려와 “전두환 독재 일당인 공수부대와 싸워야한다. 총과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당시 나주와 광산구 경계에 주둔하면서 광주 시내와 전남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그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존재도 이때 처음 접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무기를 달라며 부대를 찾아온 학생 시위대가 칼빈소총을 휴대하면서도 허리춤엔 M1소총 실탄을 두르고 있었다는 것과 부대장인 정씨의 설득으로 총돌 없이 돌아갔다는 점이다. 총기와 총알이 달라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무기를 휴대한 점에 미뤄 군복무 경험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진압군에 맞서려고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씨는 “당시 광주와 전남엔 복귀는 없었고, 불순 분자도 없었다. 시위에 나선 지역민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죽음을 감수하고서 진압군에 맞섰다는 게 당시 지휘관으로서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2, 해질 19:27, 달뜨기 01:25, 달지기 21:56

반갑다! 맑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에 비가 그친 뒤 오후엔 대체로 맑았다.

광주	비온뒤 맑	13/22	보성	비온뒤 맑	11/22
목포	비온뒤 맑	13/20	순천	비온뒤 맑	12/22
여수	비온뒤 맑	13/19	영광	비온뒤 맑	12/21
나주	비온뒤 맑	21/22	진도	비온뒤 맑	12/20
완도	비온뒤 맑	13/21	전주	비온뒤 맑	12/22
구례	비온뒤 맑	12/23	군산	비온뒤 맑	12/19
강진	비온뒤 맑	12/21	남원	비온뒤 맑	12/20
해남	비온뒤 맑	12/21	홍산도	비온뒤 맑	12/18
장성	비온뒤 맑	11/21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남부	서~북서	1.5~2.5	남서~서	1.5~2.5
남해	남부	서~북서	2.0~3.0	남서~서	2.0~3.0
남해	남부	서~북서	1.5~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서~북서	2.0~3.0	남서~서	1.5~2.5
남해	서부	서~북서	2.0~3.0	남서~서	1.5~2.5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	☀	☁	☀	☀	☀	☀
14/27	14/28	16/24	14/26	13/27	14/27	14/25

구라... 기스...

대학생들 자주 쓰는 일본어들 광복 70돌 맞아 700명 설문

“간지, 뽀록, 오케바리, 구라, 가라, 땡강, 뽀까뽀까, 애매하다, 사라, 닭도리탕, 찌까다시, 지리, 다데기, 식대, 무대뽀, 소부, 와쿠, 기스, 분배이, 공구리, 후카시, 곤색, 망년회, 견출지, 호치케스, 곱참, 땡땡이무늬, 노가다, 잔업, 시말서.” 다음 중 자신이 평소 많이 쓰는 단어 5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 대학생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팀이 서울·경기 지역 남녀 대학생 각 350명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대학생 405명(57.9%)이 자주 쓰는 단어로 ‘구라(거짓말)’를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어 애매하다(모호하다·386명), 기스(상처·283명), 간지(맛·211명), 닭도리탕(닭볶음탕·192명), 다데기(다진양념·179명), 뽀록(들통·162명), 분배이(분배)·노가다(노동·159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두 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일본어 잔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연합뉴스



‘5·18나눔정신 헌혈행사’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교수회가 11일 ‘5·18나눔정신 헌혈행사’를 연 가운데 학생과 교수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이용자 7%만 ‘성공’

올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연간 60만여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7% 정도가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팀 연구원이 작성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과 소요세정’

논문을 보면 금연 결심자 가운데 의료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대상자 규모는 59만명 정도다.

윤 연구원은 2012년 19세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 3957만명 가운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율을 적용해 우리나라 흡

연자 수를 1002만명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55%)을 적용하면 금연 시도자는 554만명이다.

이 가운데 금연치료 급여화 이후 적극적으로 의료가관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적극적 금연 시도자’ 규모는 금연 시도자의 18.2% 수준인 약 100만명으로 추산했다.

수족구병·눈병 등 영유아 감염병 비상

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환자 1주일새 55.3% 급증”

어린이집·유치원 등 손씻기 생활화 지도 당부

수족구병, 눈병, 독감 등 감염병이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어 어린이들을 둔 가정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감염 확인 환자+의심 환자) 수는 4월 26일~5월 2

일 5.9명으로 1주일 전인 4월 19~25일의 3.8명보다 55.3% 늘었다.

의사환자는 4주 전인 3월 29일~4월 4일 1.8명에서 한 달 새 3.3배로 급증했다. 수족구병은 침, 가래, 콧물,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이다. 발열, 두통과 함께 설사, 구토 등이 생기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손, 발, 입 안, 혀, 잇몸이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수족구병은 생후

6개월~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린다.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는 0~6세가 7.5명에서 7~18세의 0.9명보다 훨씬 많았다. 영유아들이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커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흔히 눈병으로 불리는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85개 안과 개원의원 통해 집계한 유행성 각결막염의 인구 1천명당 외래환자는 4월 26일~5월 2일 16.5명으로, 1주일 전의 15.2명보다 1.3명 많았다.

특히 0~6세 환자가 많아서 이 연령대의 1000명당 외래환자는 36.7명으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유행성 각결막염과 수족구병은 둘 다 환자가 4~5월 봄철에 늘기 시작해 여름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동안 계속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성 각결막염도 수족구병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가 좋은 예방법이다.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가 발령해 있는 독감(인플루엔자)은 의사환자 수가 유행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영유아와 어린이 환자는 여전히 유행 기준을 웃돌고 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연합뉴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Software Asset Management

일시 • 2015년 5월 20일(수) 13:30 ~ 17:00

장소 •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212호, 213호

주최 • 광주일보사, 브라이언 커뮤니케이션스

후원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산업진흥원

참석대상 • 기업 및 산학단체 전산담당자, 관련학과 학생 및 교직원, 관심있는 분

내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자산관리 방법교육

참가비 • 무료, 기념품제공

신청/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010-5156-5596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
14:00~14:10	환영사	-
14:10~14:40	저작권법 설명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4:40~15:10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라이선스 소개와 정책	마이크로소프트
15:10~15:40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모범사례	원도군청
15:40~15:50	휴식	
15:50~16:20	소프트웨어 단속사례 및 소프트웨어 효율적 관리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16:20~16:50	베라핌 소개와 이용 방법	EY현영 or 딜로이트
16:50~17:00	클로징	